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9월 2일)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오계 지키며 군 생활 임하겠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3500여 훈련병들이 불제자로 거듭났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29일 호국연무사서 수계법회를 봉행했으며 장병들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증서 3000장을 전달해 생명살림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계사를 맡은 일면 스님은 "훈련병들이 오계를 잘 수지하며 바른 불자로 거듭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진은 이사장 일면 스님이 오계수지의 의미에 대해 장병들에게 설하는 모습. **글=김지원 기자 ·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6천 비구니 구심점 '반백년' 맞다

출범 50주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역할과 과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구세원력을 사회에 실천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조직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출범 반백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는 5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비롯해 앞으로 비구니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오는 10월 2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전국비구니회 50년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행사는 오전 8시 영산재를 시작으로 △법요식 △문화공연 △바자회 등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특히 비구니회 역사가 담긴 다큐멘터리 상영과 17개 지회가 참여하는 장터를 통해 6천여 비구니들의 소속감과 원력 결집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비구니회는 "50주년을 맞아 올바른 불교적 가치와 문화를 홍보하고 대중과 함께하고자 한다. 지역민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웃종교와의 편견과 선입견도 제거해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키우고자 한다"면서 "비구니회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고 뮤지컬,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등 불자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불교문화 한마당으로 소통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시작과 발전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2월 '도덕을 높이고 신의를 밝혀 사회의 꾀함을 위함'이라는 기치 아래 전신(前身)인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가 조직되며 시작을 알렸다. 여기에는 비구니계 원로로 2016년 입적한 진관사 진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을 역임한 광우 스님과 명성 스님 등이 뜻을 모았다.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임시총회에서는 교육 · 수행 · 포교 ·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우담바라회는 △총림의 건립 △포교의 합리화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3대 강령을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며, 3대 비구니사찰로 불린 서울 숭인동 청룡사에 사무실을 뒀다.

1968년 우담바라회로 출범
전국비구니회로 명칭 바꿔
최대 비구니 스님 모임 발전

10월 28일 50주년 기념행사
영산재 · 문화 공연 등 진행

이후 우담바라회는 1년여 만에 회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 전국적인 조직으로 거듭났지만 1970년대 추진하던 총림 설립이 난항에 부딪히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지명스님이 3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다. 이때 우담바라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1년 서울 성북동 성라암에 한국비구니대학(중앙승가대 합병)을 설립하고, 1988년 양천구 목동청소년회관과 양천구민체육센터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20여 년간 이어온 모연운동을 통해 1998년 강남구 수서동에 총 면적 2500여 평의 전국비구니회관을 착공해 2003년 개관했다.

또한 개혁종단 출범 이후 중앙종회에 비구니종회의원 10석을 마련해 입법활동에 역량을 쏟는 한편,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비중이 점차 커져 교육원과 포교원, 총무원 재무부 및 문화부 등 각종 분야의 종무행정에도 공을 세웠다.



전국비구니회 50년 약사

1968.	2.	'대한불교비구니우담바라회' 발족
1980.		'조계종 전국비구니'로 명칭 변경
1981.	3.	성라암에 한국비구니대학교 개교
1988.	12.	목동 청소년회관 등 위탁 운영
1998.	9.	전국비구니회관 기공식
	10.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명 추천
2003.	8.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기념법회
2006.	6.	비구니 수행전통에 대한 포럼
2007.	3.	전국비구니회 법화산림 특별법회
2016.	5.	비구니 원로회의 구성
2016.	6.	해인사 자비원 인수 운영 결의

종헌종법 개정… 비구니 복지 확대 '과제'

전국비구니회는 수십 년간의 운영을 통해 비구니들의 위상강화를 이끌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대중의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부분의 과제가 현행 종헌종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와의 교감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비구니 위상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로 격상시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비구니특별교구를 설립해 비구니사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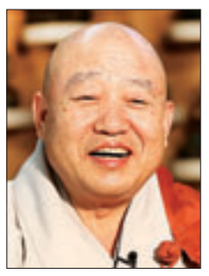
전국비구니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구니회 회원스님들은 이 같은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인 공론화와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해 종무회의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비구니회는 승려복지회와 동국대 일산병원 MOU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료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승려복지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더 많은 비구니스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비구니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만큼 비구니들의 활동이 종단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비구니들의 대사회활동을 돕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더 많은 중앙종무기관 소임자가 배출되도록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인준

10월 2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지난달 28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돼 즉시 임기에 돌입한 원행 스님〈사진〉이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인준을 거쳤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세민)는 10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60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원행 스님의 인준 건을 다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과 관련된 공식적인 종헌종법 절차를 통과했으며, 본격적인 대외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인환 대종사를 제외한 22명의 원로의원이 참석했다.

안건 논의에 앞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우리 종단은 근래 대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지난 8월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계기로 총무원장 선거체제로 전환됐고, 9월 28일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원행 스님이 36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면서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 인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회의서 이월된 종단 현안 논의의 건을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민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와 종단의 중흥을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에 원로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원로들께서는 종단 안정과 중흥을 위해 애종심으로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화합과 혁신, 복지와 교육, 포교, 대사회활동 등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큰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인사했다.

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원로회의 사무처장 남전 스님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총무원장 인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다른 안건인 종단현안 논의의 건과 기타안건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남전 스님에 따르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준 후 원로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종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사부대중과 함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정 예하와 제방 원로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납은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우리 종단과 불교계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불교와 조계종은 중생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고,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전통문화 계승과 창달에 이바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현상으로 출가자 및 불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조계종단 안팎으로 많은 견해대립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사회적 위상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단 과제 해결을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승가복지와 종단화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그것입니다.

먼저 승가복지입니다.

승가복지가 되어야 승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가소속감을 높이겠습니다. 교구중심제를 위한 첫 사업으로 교구본사와 협의하여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단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어 어떠한 의견일지라도 총무원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를 종법기구화하여 비구니스님의 의견을 직접 듣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남북불자교류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남북불교계공동으로 복원했던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스테이 등 적극적인 남북평화사업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불교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나아가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문화창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회향하는 명실상부한 대승불교의 모습으로 사회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저 원행은 종정 예하와 제방 원로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사부대중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총무원장 직무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사부대중만을 믿고, 사부대중과 함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위상제고를 위한 원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2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당선자 **원행** 합장